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혜경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A Effects of Infant Teachers' Happin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HeaKyoung Ch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울산광역시 영유아교사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영유아교사의 행복감 하위 요인인 자기 조절 행복감은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행복감과 외적 행복감 요인은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영유아교사의 행복감 하위 요인인 자기 조절 행복감은 유지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행복감과 외적 행복감 요인은 유지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행복감 하위 요인인 자기 조절 행복감 요인은 규범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들의 조직 몰입 향상을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appin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eachers of Infants and Toddlers. The study subjects were 167 infant teachers in Ulsa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on SPSS 22.0 program,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causal relation between variables.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self-regulating happiness, a sub-factor of happiness of infant teach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ffective commitment, but factors of internal and external happines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affective commitment. Second, self-regulating happi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ontinuance commitment. Third, the self-regulating happi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normative commitment. This study is consider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preparing a practical intervention plan for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infant teachers.

Keywords : Infant Teacher, Happiness, Affective commitment, Continuance commitment, Normative commitment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eaKyoung Cho(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email: chk9071@hanmail.net

Received July 31, 2020

Revised September 14, 2020

Accepted December 4,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과학의 발달과 경제적인 성장으로 현대사회는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과 행복한 직업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즉 인간이 추구하는 긍정적인 목적이 행복이라면 행복감이란 높은 행복한 느낌과 낙관적인 행동에 수반되는, 극도로 높아있는 느낌이나 감각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교사의 행복감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유아의 발달 및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교사-유아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중의 하나는 행복감이기 때문이다[1]. 따라서 유아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2], 결과적으로 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의 질이 영유아교사의 행복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의 향상을 위한 관심과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중요성은 행복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행복한 교사는 유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유아교육으로 질적인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1]. 이는 양질의 유아보육을 위해 영유아교사의 심리 요인인 행복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행복한 영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 행복감이 긍정적 영향으로 표출된다[3].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행복 관련 선행연구는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자아 존중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이 영유아교사의 행복과 큰 수준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상기의 고찰을 통해 영유아교사의 행복은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영유아교사의 행복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영유아교사의 행복 수준을 증대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영유아교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는 양질의 유아보육을 위해 영

유아교사의 행복 관련 직무 특성변인인 조직몰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유아교사에게 조직 몰입이란 이에 대한 개인이 동일시와 참여의 정도로서 상대적 의미이며[6], 구성요소를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강영숙의 도구를 사용하였다[7]. 또한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직무특성과 관련된 조직몰입 연구에서, 급여, 재직기간, 직위, 직원 수 등이 조직몰입과 정적인 관계가 있고, 특히 직무특성 중 과업자율성이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다[8]. 따라서 교사의 행복은 영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영유아교사는 영유아의 행복감과 관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영유아 시기는 모든 발달영역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9], 따라서 조직몰입은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자아 존중감에 대한 연구[4]는 일부 진행되었지만 영유아교사의 행복 관련 개인 변인과 직무 변인과의 효과에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개인변인인 행복감이 직무변인인 조직몰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영유아교사들의 교육분야에 역할과 중요성이 모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사들이 겪는 우울감과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목적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유지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20일 까지 U광역시 N구 5곳, D구 5곳, B구 5곳, J구 8곳, U군 3곳의 어린이집 근무자인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총 200부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33부를 제외한 167부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항, 행복감 28문항, 조직몰입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현재직위, 근무경력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Hills과 Argyle가 개발하여 조승현[10]이 사용한 행복감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내적 행복감 10문항, 외적 행복감 9문항, 자기 조절 행복감 9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영유아교사의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Allen과 Meyer가 개발하여 강영숙[7]이 사용한 조직몰입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정서적 몰입 6문항, 유지적 몰입 6문항, 규범적 몰입 6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2.3.1 행복감의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행복감의 신뢰도 검증결과 행복감에 대한 신뢰도는 하위요인인 내적 행복감 .907, 외적 행복감 .934, 자기 조절 행복감 .938이며, 전체 신뢰도는 .95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행복감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Happiness

Sortation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teacher happiness	an inner sense of happiness	10	.907	.950
	external euphoria	9	.934	
	self-regulating euphoria	9	.938	

2.3.1 조직몰입의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조직몰입의 신뢰도 검증결과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몰입 .651, 유지적 몰입 .709,

규범적 몰입 .672이며, 전체 신뢰도는 .751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Table 2. Reliability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Sortation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Organizational immersion	emotional immersion	6	.651	.751
	maintenance immersion	6	.709	
	normative immersion	6	.672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영유아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조직몰입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영유아교사의 성별은 여자 167명(100.0%)으로 모두 여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은 40대가 82명(49.1%)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44명(26.3%), 20대가 27명(16.2%), 50대 이상이 14명(8.4%)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127명(76.0%), 미혼이 40명(24.0%)으로 기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직위는 담임교사 113명(67.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교사 21명(12.6%), 원감(주임)교사 13명(7.8%), 원감 11명(6.6%), 방과후 및 종일반교사 9명(5.4%)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48명(28.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이상-6년 미만이 50명(26.9%), 10년 이상-15년 미만이 34명(20.4%), 6년 이상-10년 미만이 29명(17.4%), 15년 이상 11명(6.6%)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rtation		the entire(N=167)	
		frequency	Ratio (%)
Gender	Male	0	0.0
	Female	167	100.0
Age	20s	27	16.2
	30s	44	26.3
	40s	82	49.1
	over fifty	14	8.4
marital status	Single	40	24.0
	Married	127	76.0
current position	after-school and all-day teacher	9	5.4
	assistant teacher	21	12.6
	a homeroom teacher	113	67.7
	a principal instructor	13	7.8
	director	11	6.6
Service experience	More than 1 year and less than 3 years	48	28.7
	More than 3 years and less than 6 years	45	26.9
	More than 6 years and less than 10 years	29	17.4
	More than 10 years and less than 15 years	34	20.4
	more than 15 years	11	6.6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2.1 영유아교사의 행복감, 조직몰입에 대한 기술통계

영유아교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행복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내적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n key variables

Sortation		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	SD
teacher happiness	an inner sense of happiness	167	2.00	4.80	3.64	.58
	external euphoria	167	2.33	4.78	3.63	.53
	self-regulating euphoria	167	1.67	4.78	3.53	.56
Organizational immersion	self-regulating euphoria	167	1.83	5.00	3.62	.66
	maintenance immersion	167	1.83	4.00	3.07	.39
	normative immersion	167	1.67	5.00	3.33	.62

행복감(M=3.64)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적 행복감(M=3.63), 자기 조절 행복감(M=3.53) 순으로 모두 평균점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직몰입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몰입(M=3.62)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규범적 몰입(M=3.33), 유지적 몰입(M=3.07) 순으로 모두 평균점수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교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4>와 같다.

3.3 변수 간의 상관관계

영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조직몰입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행복감 요인과 조직몰입 요인은 다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547,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관계 수 값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Sortation	teacher happiness	Organizational immersion
teacher happiness	1	
Organizational immersion	.547**	1

* $p<.05$, ** $p<.01$

3.4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3.4.1 행복감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영유아교사의 정서적 몰입에 대한 행복감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314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31.4%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514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24.751,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 조절행복감($\beta=.533, p<.001$) 요인은 정서적 몰입에 대해 유의수준 하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적 행복감($\beta=-.221, p>.05$), 외적 행복감($\beta=.253, p>.05$) 요인은 정

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행복감의 자기 조절 행복감이 높을수록 정서적 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Table 6. The Effect of the Happiness of Infant Teachers on the Inner Happi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coherenc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β		Tolerance Limit	VIF
emotional immersion	Constant	1.185	.300		3.953***		
	an inner sense of happiness	-.248	.190	-.221	-1.308	.148	6.769
	external euphoria	.313	.180	.253	1.739	.200	4.996
	self-regulating euphoria	.626	.164	.533	3.813***	.217	4.617

* p<.05, ** p<.01, *** p<.001

3.4.2 행복감이 유지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유지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영유아교사의 유지적 몰입에 대한 행복감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140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14.0%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731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8.809,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 조절행복감(β =.395, p<.05) 요인은 유지적 몰입에 대해 유의수준 하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적 행복감(β =-.051, p>.05), 외적 행복감(β =.028, p>.05) 요인은 유지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행복감의 자기 조절 행복감이 높을수록 유지적 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유지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Table 7. The Effect of Infant Teachers' Happiness on External Happi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coherenc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β		Tolerance Limit	VIF
maintenance immersion	Constant	2.152	.199		10.833**		
	an inner sense of happiness	-.034	.126	-.051	-.273	.148	6.762
	external euphoria	.021	.119	.028	.174	.200	4.996
	self-regulating euphoria	.275	.109	.395	2.530*	.217	4.611

* p<.05, ** p<.01, *** p<.001

3.4.2 행복감이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영유아교사의 규범적 몰입에 대한 행복감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256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25.6%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954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18.647,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 조절행복감(β =.652, p<.05) 요인은 규범적 몰입에 대해 유의수준 하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적 행복감(β =-.295, p>.05), 외적 행복감(β =.120, p>.05) 요인은 규범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행복감의 자기 조절 행복감이 높을수록 규범적 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Table 8. The Effect of the Happiness of Infant Teachers on Self-Contro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coherenc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β	Tolerance Limit
normative immersion	Constant	1.421	.293		4.846***		
	an inner sense of happiness	-.311	.185	-.295	-1.680	.148	6.762
	external euphoria	.139	.176	.120	.792	.200	4.996
	self-regulating euphoria	.721	.160	.652	4.493***	.217	4.611

* p<.05, ** p<.01, *** p<.001

3.4.3 행복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영유아교사의 조직몰입에 대한 행복감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350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35.0%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609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29.052,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 조절행복감($\beta=.654$, p<.05) 요인은 조직몰입에 대해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적 행복감($\beta=-.252$, p>.05), 외적 행복감($\beta=.181$, p>.05) 요인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행복감의 자기 조절 행복감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Table 9. The effect of the happin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coherenc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β	Tolerance Limit
organizational commitment	Constant	1.584	.206		7.687***		
	an inner sense of happiness	-.199	.130	-.252	-1.527	.148	6.769
	external euphoria	.158	.124	.181	1.275	.200	4.996
	self-regulating euphoria	.542	.113	.654	4.803***	.217	4.617

* p<.05, ** p<.01, ***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사행복감이 영유아교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교사행복감과 조직몰입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연구문제 3개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영유아교사들은 내적 행복감과 정서적 몰입($r=.389$, p<.01), 외적 행복감과 정서적 몰입($r=.499$, p<.01), 자기 조절 행복감과 정서적 몰입($r=.549$, p<.01), 자기 조절 행복감과 규범적 몰입($r=.492$, p<.01)은 다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확인되었다. 반면 교사행복감의 외적, 내적, 자기 조절 행복감과 유지적 몰입은 낮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교사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자기 조절행복감 요인은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적 행복감과 외적 행복감 요인은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교사행복감의 자기 조절 행복감이 높을수록 정서적 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교사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자기 조절행복감 요인은 유지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적 행복감과 외적 행복감 요인은 유지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교사행복감의 자기 조절 행복감이 높을수록 유지적 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교사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자기 조절행복감 요인은 규범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적 행복감과 외적 행복감 요인은 규범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교사행복감의 자기 조절 행복감이 높을수록 규범적 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감은 조직몰입을 돕는다는 선행연구[3], 보육교사의 조직몰입과 행복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11]의 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한 수퍼비 작업동맹은 자기개발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Webb & Wheeler; 1998)와 일치한다.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지각하는 교사행복감은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내적 행복감과 외적 행복감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교사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자기 조절행복감 요인은 유지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을 높이기 위해 조직몰입, 행복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부차적으로 최근 영유아교사에게 크게 강조되고 있는 조직몰입이고, 자기 조절행복감 요인이 높은 규범적이고 유지적 몰입에도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높은 행복을 느끼는 행복감이 개인, 영유아와 가족 뿐 만 아니라 특히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일체감, 소속감, 충실성을 가지는 조직 몰입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조사 지역 및 조사 대상, 방법의 한계가 있으며,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본지역 확대와 비교집단간 연구로 폭 넓고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영유아교사들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연구로 행복한 직무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사행복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의 실천적 개입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E. J. Lee, S. L. Kim, "Stress, Happiness, and Teaching Efficacy on Teacher-Child Interaction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8, No.5, pp. 437-447, Oct. 2019.
DOI: <https://doi.org/10.5934/kihe.2019.28.5.437>
- [2] M. S. Yun, S. W. Kim, J. J. Youn (2017).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job satisfaction, teaching flow,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Vol.16, No.4, pp.229-254, Dec. 2017.
DOI: <http://dx.doi.org/10.21183/kicm.2017.12.16.4.229>
- [3] Y. S. Jung, H. W. Chung, "Relationship among teacher effic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role performance of child care teacher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happiness",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5, No.2, pp.177-196, Apr. 2020.
DOI: <http://dx.doi.org/10.20437/KOAECE25-2-08>
- [4] B. M. Kim, M. J. Kim,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2, No.5, pp.305-324, Oct. 2017.
DOI: <http://dx.doi.org/10.22155/JFECE.24.2.191.215>
- [5] H. I. Hwang, K. H.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effic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teaching flow and flourishing",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2, No.1, pp.325-352, Feb. 2017.
DOI: <http://dx.doi.org/10.20437/KOAECE22-1-13>
- [6] L. W. Porter, R. M. Steers, R. T. Mowday, P. V. Boulia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among psychiatric technicia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59, No.5, pp.603-609, 1974.
DOI: <https://doi.org/10.1037/h0037335>
- [7] Y. S. Kang, *Impact of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Childcare Center Principal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hildcare Teachers: with priority given to the moder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Korea, pp.42-47, 2014.
- [8] J. J. Kim,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youth workers and it's related variables*, Ph.D disserta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57-58, 1998.

- [9] J. S. Park, *Self-elasticity of child care teachers,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stress on happines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58-60, 2019.
- [10] S. H. Cho,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It's Related Variables*,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Gwangju University, pp.61-62, 2017.
- [11] D. H. Kim, S. M. lee,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Teacher Efficac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ediating Role of Happines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21, No.3, pp.231-254. Sep. 2017.
DOI: <http://doi.org/10.22590/ecee.2017.21.3.231>

조 혜 경(HeaKyoung Cho)

[정회원]



- 2020년 2월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육학 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큰사랑드림 콘텐츠연구소 대표
- 2020년 2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교육상담